



밤

달

작

俊 泰 李

성북동(城北洞)으로 이사나와서 한 대엿새되었을가 그날밤, 나는 보는 신문들 머리말에 밀어던지고 누어 새삼스럽게 『여가도 청말 시골이로군!』 하였다.

무어 박알이 켜켜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쏘아하는 술 바람 소리를 처음 드리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곳 못난이란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들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때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주었다.

시골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었지만 대개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모리 못난이라도 마음놓고 나와다니는 때문이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잇는 것처럼 흥이 시골에서 잘 눈에 띄인다. 그리고 또 흥이 그는 태고시대 사람처럼 그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런 눈물가지고 자기 동리에 처음 드러서는 제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청취를 몰아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열어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꽤 짙은 소리로

『아 이네이 문안서……』

하면서 드러섰다. 잠달까하고 큰일이나 난사람처럼 건넌방 문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저! 문안 서대문거리라나요 어디신가 나오신 대입쇼』

한다.

보나 『합비』는 안 남었스되 신문을 들고온것이 신문배달부다.

『그럼소 신문이오?』

『아! 그런걸 사흘이나 저, 저! 건넌쪽에만 가 찾았습쇼 제! 기……』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드렸드리며

『그런데쇼 왜 이러케 죄파만 집을 사구와제쇼 아, 내가 알었

드면 이 아래 큰 개와집도 많은걸입쇼……」

한다. 하 말이 황당스러 유심하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첫눈에 두드러지는 것이빠빠 짝은 머리로되 보통 크다는 정도이상으로 골이크다. 그런데다 옆으로보니 장구대가리다.

「그럼쇼? 아모런 집 찾노라고 수고했쇼」

하니 그는 큰 눈과 큰 입이 허송거리며

「월입쇼. 이게 케 업인뎌쇼」

하고 날래 물러서지 않고 목을길게 빼여 방안을 살핀다. 그러더니 못지도 않는대

「저는입쇼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이라 합니다……」

하고 인사를 부친다. 나도 청명하게 내 이름을 대었다. 그는 또 싱글 병글하면서

「대엔 개가 없구먼입쇼」

한다.

「아직없쇼」

하니

「개 그까짓거 두지 마십쇼」

한다.

「왜 그러쇼?」

물으니 그는 얼른 대답하는 말이

「신문 보는 집엔입쇼 개를 두지 말아야합니다」한다. 이것 재미 잇는 말이다 하고 나는

「왜 그러쇼?」

하고 또 물었다.

「아, 이 똥동네 은행소에 명기는 집엔입쇼 땅아지만한 개가잇는뎌쇼 아, 신문을 배달할수가 잇시압쇼」

「왜?」

「막 깨물라고 명비는걸입쇼」

한다.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웃기만하니 그는 더욱 신을 낸다.

「그놈에게 그커, 한번, 양뎌를 맥여대야할런데……」

하면서 주먹을 부르는데 보니 손과 팔뚝은 머리에 비가여한 비레로 작고 가느다랗다.

「어서 곤할런데 가 자시오」

하니 그는 마지못해 물러서며

「선생님, 참 이선생님 편안하 주릅쇼 귀집은여기서 얼마 앞되는 걸입쇼」하더니 돌아갔다.

그는 이른날커덕, 집을알고 오는태도 아홉시가 지나서야

「신문배달해왔습니다」

하고 소리를 치며 드러섰다.

「오늘은 왜 늦었느냐?」

물으니

「자면 그럼쇼」

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자기는 워낙 이 아래 잇는 삼산학교에서 일을보다 어떤선생하고 뜻이 달맞어 나왔다는 것, 지금은 신문배달을 하나원배달이 아니라 보조배달이라는 것, 커이집엔 양친과 형님네외와 족하 하나와 커이 내외까지 식구가 일곱이란 것, 커이 아버지 와 커이형님의 이름은 무엇무엇이며 자기 이름은 황가인데다가 목숨수사하고 세울건사자로황수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랑수 건이라고 불러서 청북동에서는 가가호호에서 노랑수하면 다자긴 줄 알리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이날도

「어서 그만다들 집에도 신문을 갖다 취야하지않쇼?」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나갔다.

◇

우리집에서는 그까짓 반편과 무얼 대꾸를 해가지고 그러느냐?

하되 나는 그와 직거리기가 좋았다.

그는 아모것도 아닌것을 가지고 열심히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고 그와는 아모리 오래 직거리어도 힘이 들지 않고 또 아

모리 오래 직거리어도 힘이 들지 않고 또 아모리 오래 직거리고나도  
 옷을 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 기분이 거뜬해지는 것도 좋았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중만 아니면 한참씩 그의 말을 받아주었다  
 어떤날은 서로 말이 딱히기도 했다. 대답이 딱히는 것이 아  
 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가 하고  
 딱히었다. 그러나  
 그는 불나보다 빠  
 르게 이야기꺼리  
 를 잘 찾아냈다.

남이 혼자 배달하기 힘들려서 한 이십부 때여 주는 것을 배  
 달하고 월급이라고 원배달에게서 한 삼원 받는 터이라 월급이  
 십여원을 받고, 신문사 옷을 입고, 방을 차고 다니는 원배달이  
 제일 부럽노라 하였다. 그리고 방을만 차면 자기도 뛰여다니며 빨  
 리 돌을만 아니라  
 그 은행소에 다니  
 는 집 개도 조금도  
 무시할 것이 없겠노  
 라 하였다.

오뉴월인데도 『평  
 고기를 잘 먹느냐  
 ?』고도 못하고 『양복  
 은 커고리를 먼저  
 입느냐 바지를  
 먼저 입느냐?』  
 고도 못하고 『소와 말  
 파 차이를 부치면  
 어느 것이 이기겠느냐』는 등 아모리  
 그가 얘기꺼리를  
 취재하는 방면은  
 기상천외로 여간  
 범위가 넓지 않  
 은 데는 도저히 당  
 할 수가 없었다.



하로는 나는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그 까짓것쯤 알든 대답하기는 누워서 펴먹기라고 하면서 평  
 생 소원은 자기도 원배달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문사장은 이내 잊어버리고 원배달만 마음에 박혔든  
 듯 하로는 박달마당에서부터 무어라고 떠드려대며 드려왔다.  
 『이 선생님? 이선. 님 집소? 아, 커도 내일부턴 원배달이 올시다

그렇서 나는 그  
 렷것 없이 아주 신  
 문사 사장쯤 되었  
 스면 원배달도 바  
 람 것 없고 그 은  
 행소에 다니는 집  
 개도 상관할 배 없  
 지 않겠느냐?』한  
 즉 그는 웬그래지  
 는 말을 한참 골리  
 생각하드니 땅은 그  
 렷켰다고 하면서 자  
 기는 경년이 없어  
 거기까지는 바깥 생  
 각도 못하였다고 무  
 림을 치듯 가슴을  
 쳤다.

오늘밤만 자면입쇼.....」

한다. 자서히 무리보니 성복등이 따로 한구역 되었는데 자기가 맡게되었스니까 내일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막떨렁거리면서 올테니 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이란게 그리게 무어던지 끝을바라고 못들어야 한다고 나에게 일러주면서 신이나서 돌아갔다. 우리도 그가 원배달이 된 것이 좋은 친구가 큰 출세나 하든 것처럼 마음속으로 실로 즐거웠다. 어서 내일 저녁에 그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차고 와서 울렁거리는 것을 보리라 하였다.

그러나 이른날 그는 오지 않았다.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그 다음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에야 이 날은 해도 지기전인데 방울소리가 요란스럽게 우리집으로 뛰어들었다. 「어디 보자!」 하고 나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그러나 제일일이 청말 배달복에 방울을차고 신문을 들고 드리서는 사람은 황수건이가 아니라 처음 보는사람이다.

「왜 편했 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오?」

물으니 그는

「제가 성복등을 맡았습니다」

한다.

「그럼 편했 사람은 어디를 맡았소?」

하니 그는 뭐 웃으며

「그까짓반편을 어릴 말입니까? 배달부로 쓸라다가 똑똑치가 못

하니까 양쓰고 말었나봅니다」한다.

「그럼 보조배달도 퍼리킷소?」

하니

「그럼요 여기가 따로 한 구역이 된걸이요」

하면서 방울을 울리며 나갔다.

이러케 되었스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을 열어서 갔다. 나도 가끔문안엔 다니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옆은 아닌듯 길사이에서도 잘 보하지않았다.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끝에 보낸 것 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맛나는 설설뿐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그 당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한데 황수건은 그의 말대로 노랑수건이라명 온 동네에서 유명한 하였다. 노랑수건하면 누구나 성복등에서 오래 산 사람이면 먼저 웃고 대답하는 것을 나는 차츰알았다.

내가 잠간씩 메칠 보기에다 그랬거니와 그에겐 웃어운 일화도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삼산학교에 급사로 잇습시대에 삼산학교에다 남겨놓고 나온일화도 여러가지라는데 그중에 두어가지를 동네사람들의 말대로 물어보면 역시 그때부터도 이야기하기를 대단즐거워 선생들이 교실에 드리간새 손님이 오면 으레 손님을 앉히고는 자기도 결상을 갖다 떡 마조놓고 앉는 것은무론, 마조앉어서는 꽃자기류의 만담삼매로 빠지는 것인데 한번은 도학무국에서 시학관이 나온 것을 이따위로 대접하였다. 일본말을 못하니까 만담은 할수 없고 마조 앉아서 작고 일본말을 연습하였다.

「선생이 허, 오하요고사이마쓰..... 허허 아메가 후리마쓰, 유끼가후리마쓰까 허허.....」

시학관도 인칭이라 처음엔 웃었다. 그러나 열번 수브편을 되풀이하는데는 청이나고말었다. 선생들은 아모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한 선생이 나와보니 종칠 것도 잊어버리고 손님과 마조 앉아서 「오하오 유끼가 후리마쓰가.....」하는 판이다.

그날 수건이는 선생들에게 단단히 물리고 다시는 양그리겠노라고 했스나 그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그예쨌거나오고 말은 것

이다.

그는 『너의 색시 다라나다』하는 말을 제일 무시워했다 한다. 한번은 어느 선생이 착한말로 『여중 같은 마흔한 불날엔 옛날부터 색시들이 다라나기를 좋아하는데 어찌도 커 아랫말에서 두리나 다라나다니까 오물은 이동리에서 반드시 다라나는 색시가 잇스리라』했더니 수건이는 청심을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쳐다 한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어서바빠 하학을 식히고 집으로 갈량으로 오십분만에 치는 종을 이십분만에 삼십분만에 합부로 다거쳐 컷다는 이야기도 잇다.

하로는 나는 거이 그를 잊어버리고 잇을 때

『이선생님 계집쇼?』

하고 수건이가 찾아왔다. 반가웠다.

『선생님 요즘 신문이 걸르지 않고 잘읽쇼?』

하고 그는 배달감독이나 되여온듯이 웃는다.

『잘 오, 왜그류?』

한즉 또

『늦지도 않습쇼 일찍이 컷때마다 꼭꼭 읊쇼?』

한다.

『당신이 들을 때보다 세시간은 일찍이 오고 날마다 꼭꼭 잘

오』

하니 그는머리를 벅쳐벅쳐 긁으면서

『하루라도 걸르기면해라 신문사에 가서 대뜸일러바치지...』

하고 그 빈약한 주먹을 부르낸다.

『그런텔쇼 선생님?』

『왜 그류?』

『삼산학교에 말씀해요 그 커대신 드리온 급사가 커보다 큰력

이 세게 생겼습쇼?』

『나는 그 사람을 보지못해서 모르겟쇼』

하니 그는 은근한 말소리로 허죽거리며

『제가 거길 또 드리가볼라습쇼 운동을합쇼』

한다.

『어찌케 운동을 하오?』

『그까짓거 날마당 사무실로 갑쇼 다시 컷달라고 졸라냅쇼...』

아, 그랫더니 새 급사란 녀석이 커보다 크기도 무척큰텔쇼 이

녀석이 막 볼근댈니다그려 그래 한번 씹을 해야 할런텔쇼 그

녀석이 큰력이 얼마나 켜지 알아야 뎀버들런텔쇼...허』

『그러치 멋모르고 대드려다 매만 맞지』

하니 그는 한거름 다거쳐며 또 은근한 말을 한다.

『그런텔쇼 어찌텔엔 큰 돌맹이 하나를 굴러다 삼산학교대문

에다 뵈습쇼 그리구 오늘 아출에 가보니깐입쇼없어췌는텔쇼 이

녀석이 나처럼 억지투 굴러다버렸는지 뵈쩍 들어다 버렸는지 그

만 못 뵈거든입쇼 켜-길...』

하고 머리를 긁는다. 그리더니 갑작이 무얼 생각한듯 손뼉을타

치드니

『그런텔쇼 제가 온건입쇼 댁에선 우두를 너치 마시려구 왔습

쇼』

한다.

『우두를 왜 너치 말란 말이오?』

한즉

『요즘 마마가 다니다습쇼 모두 우두들을 녀는텔쇼 우두를 너

오면 사람이 큰력이 없어지는 법인텔쇼』

하고 자기 팔을 절어올려 우두사자를 보이면서

『이걸 볼쇼 커두 우두를 이러케 넣기때문엿쇼 큰력이 줄었

습쇼』

한다.

『우두를 넣으면 큰력이 준다고 누가 그럼디까?』

볼으니 그는 싱글거리며

「아 제가 생각해냈습죠」  
한다.

「왜 그랬소?」

하고 캐이니

「우두는 ○○○들이 조선 사람 힘 못 쓰라고 넣어주는 것인  
뎀쇼 뎀쇼……. 아래 윤금보라고 잇는 뎀쇼 기운이 장산뎀쇼 아  
삼산학교 그녀석두 우두만 넣었다면 그까짓것 무시울것없는뎀쇼  
그걸 모르겄든임쇼……」

한다. 나는

「그러케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주려 왔스니 아주고맙소」  
하였다. 그는 좋아서 병긱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그래 삼산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잇소?」

무르니 그는

「돈만 잇스면 그까짓거 누가 고쓰카이 노릇을합쇼 미천한 잇  
스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뎀컷이 장사를 할언뎀쇼」  
한다.

「무슨 장사?」

「아, 방학될 때 까지 차미장사도 하겄쇼 가을부터는 군방장사 왜  
뎀장사, 습자지, 도화지장사 막 합쇼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어  
뎀케 좋아하겄쇼」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학  
교 앞에 가서 뎀컷이 차미장사라도 해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하였다.

그는 삼원돈에 명실 명실 흠뻑추다싹히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어느날 「선생님 잡수시라겄쇼」 하고 나 없는 때 차미제개를 갖  
다 두고 갔다.

그리고는 온 여름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하지 않았다.  
드르니 차미장사를 해보긴 했는데 이내장마가 드러 미천만까

먹고 그까짓것보다 한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안해가 다라났단  
것이다. 켄이끼리 글씨는 꽤한것만 동생가 못견디게 줄어 다  
라난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강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기  
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생 밑에 살아야할 신세를 생각하고  
다라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만에 수건이가 우리집을 찾  
어왔다. 켄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예다 차도 않  
고 맨손에 들고 드리왔다. 그는 병긱거리며 첫마디로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습죠」

하는 때였다. 켄 사람 하나가 날새게 그의 뒤를 달아 들터  
니 달자판자로 수건의의 맥살을 움켜쥐고 끌고나간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골짜 못하고 끌려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훔쳐온 것을 직각하였다. 꽃이나가 매  
를 발리고 포도값을 무려주었다. 포도값을 무려주고 보니 수건이  
는 어느름에 가고 없었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놓고 오래바라  
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창을 먹듯 한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 안에 굴러보며 먹었다.

어제다. 문안에 드리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청복등 질  
우에는 밤을 달빛이 집을 관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  
로 「사게와 나미다까 다메이끼까……」를 부르며 큰 질이 준다  
는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의 강었다. 나는 「수건  
인가?」 하고 아는척하였다. 그가 나를 무안해할일이잇는것을 생각  
하고 꺾질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질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  
지도 못하는듯 찻줄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천에는 본적이없었는  
데 담배를 다 피워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듯 하였다. 一九三三年十月四日